

수백억 들인 광주 신축 공공건물 누수로 '줄줄'

무등경기장 주차장·시화문화관·송정역 주차빌딩·서빛마루센터 잇단 누수에 물 흥건...전문가들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원인 지적

수백억원의 형세를 들여 지은 광주지역 공공기관 신축 건물이 연일 내리는 폭우에 비가 줄줄 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공사지만 업자(공사·납품)·브로커·공직자를 잇는 관공서의 고질적인 유착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불법하도급과 같은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북구 임동의 무등경기장 지하주차장 바닥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로 흥건했다. 웅덩이 형태로 고여 걸터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무등경기장은 489억원의 예산을 들여 3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19일 재개장했다.

이날 시공사와 함께 현장확인에 나선 광주시종합건설본부(중견) 관계자는 "이 물은 누수가 아니라 지하수가 흐르는 배수배관에 맺힌 '결로현상'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천장을 지나는 관에는 무등경기장 지하의 차가운 암반수가 흐르고 있어 배관 내·외부의 온도가 달라 관에 맺힌 물이 떨어져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소방 배관은 단열재 처리가 돼 있는 반면, 배수배관은 단열재 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결로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결로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온차가 생키

면 언제든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등경기장 시공사 관계자는 "경기가 천변과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이번 폭우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70억원을 들여 건립중인 북구 각화동의 광주시화문화관도 이번 폭우로 물이 섰다.

광주시화문화관은 광주시가 북구 테마마을로 선정된 시화마을에 짓고 있는 문화관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리자 2층에 있는 창문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 1층까지 누수현상이 발생해 오는 9월 개관에 난항을 겪게 됐다.

중견은 문화관의 건설 하자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단기간에 받아낸 빗물이 많은 탓"이라고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최종점검을 마쳤고 보수공사 비용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월 31일 문을 연 광산구 송정동의 송정역 주차빌딩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1층과 2층 집수관 연결 부위가 90도로 꺾여있어 배수관로 빗물이 역류했고 3-5층은 차량 배기가스 환기 공간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운영사무실 천장과 6층 엘리베이터 주



18일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지하주차장 바닥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

변에서도 빗물이 섰다.

코레일 측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맞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이다. 90도로 꺾인 집수관 연결 부위는 45도로 조정하고 구경 역시 100도에서 150도로 수정할 계획이다. 빗물이 새는 곳에 대한 조치로 지난 13일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14일에는 시공사에 보수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만 본격적인 보수공사는 장마철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서구에서 226억원을 들여 건립한 서빛마루센터는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누수 현상이 발생해 개관이 연기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의학연구소장은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공공기관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적절한 비용과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완공이 이뤄지는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병무청, 60일까지 입영 연기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현역·동원훈련)가 이번 장맛비에 피해를 입었다면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산사태 위험' 통행금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통행이 금지됐다.

구례군은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천은사 주차장입구-성삼재-달공삼거리·14km)의 통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집중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구례군은 이번 통행제한은 비가 그치더라도 약해진 지반 탓에 낙석의 위험이 있어 최소 오는 21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언제 그치나"...버스정류장 비 피하기 호우경보가 계속된 18일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있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돕기 시민모금 3억원 돌파

모금 20일만에 4845건 기부

일본과 전범기업의 배상금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양근덕(95)할머니와 이춘식(102) 할아버지에게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주겠다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의 모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시민모금은 18일 낮 12시까지 4845건의 기부로 3억558만3000원이 모금됐다.

모금이 시작되기 5일 만인 지난 4일 1억원을 돌파한 뒤, 이를 뒤인 6일 2억원을 돌파했다. 시민모임은 당시 정부가 대위변제로 마련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 소멸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 불수리 처리되면서 모금액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순조롭게 출발한 모금은 2억원을 돌파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 12일 만인 18일 3억원을 넘겼다.

모금행렬에 동참한 시민들의 아름다운 사연도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에 근무하는 백광화씨는 지난달 15일 은행을 찾았다가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40대의 생명을 구한 보답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시민모금에 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정희 변호

사는 여수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강사료 전액을 시민모금에 보냈다. 장현권 서정교회 목사도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을 상대로 교육한 강사료와 광주시 인권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을 모두 시민모금에 기부했다. 김순홍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광주대학교 20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금반지를 모금운동에 기부하기도 했다.

광주일보 애독자라고 밝힌 김석준(65·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광주일보를 통해 모금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직접 광주일보로 전화해 시민모임 연락처를 알게 됐다"며 사무실로 전화해 기부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배상금 공탁 신청도 '불수리'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공탁 신청도 '불수리' 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개시 신청서를 보정해 광주지법 공탁관에게 제출했지만, 공탁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단은 지난 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법

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신청을 접수했지만,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돼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재단은 보정권고를 토대로 이 할아버지의 초본을 확보해 공탁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가 대위변제 안 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빛고을로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